면방 최고 경영자와의 인터뷰 요약 (6)

곤도보 - 일본 내 완전 자동화 시설로 수입 면사에 정면 도전

곤도보는 그 동안 두 번에 걸쳐 링 방적 시설을 감축함으로써 2004년 3월 말로서 일본 내에는 약 24만추 규모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방적 공장은, 종전의 구식 시설은 완전히 제거되고, 원면을 혼타면 공정에 투입하면 방적에서 포장하여 창고에 반입하는 데까지 완전 자동화된 공장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곤도보는 일본에서 생산된 면사가 수입 면사와 비교하여 품질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높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 코스트 때문에 수입 면사와 시장에서 경쟁에 지고 있어, 사람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대신 생산 시설을 최대한으로 자동화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부터의 양산 체제로 소품종ㆍ대로트 생산 체제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대부분의 면방 기업과는 경영 전략이 뚜렷이 갈라지고 있다.

◎ 일본 내 공장은 최신의 자동화 시설

2004년 상반기의 면사 판매는 6월까지는 호조를 보였었는데, 7월부터는 단가가 떨어졌다. 미국ㆍ중국의 면화 경작량이 증가한 데 따라 면화 시세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 면사 시세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쿼터 폐지를 내다보고 미국 기업이 면화를 사두는 동향도 배경에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원유가 1배럴에 50달러를 돌파하는 등 원ㆍ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데 따라 폴리에스터 단섬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면사 가격도 끌어올려 주는 것은 아닌지 기대하고 있다.

물론 2004년 하반기의 장사는 불투명하다. 일본 내에서는 소매점 진열대에서의 판매는 좋지 않지만 수입사의 시세 하락이 일본산 면사의 가격을 꼭 누르고 있는 상태라서 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04년 3월에 곤도보는 도요하시(豊橋) 공장의 링 방적 4만 8천추와 하마마쓰(浜松) 제3공장의 6만추로 도합 10만 8천추의 가동을 정지하여, 곤도보의 일본 내 방적 추수가 24만추로 축소하였는데, 이제 남은 공장은 원면을 자동으로 공장에 투입하면 포장된 면사가 창고에 반입되는 데까지 완전 자동화된 공장만이 남는다. 면사 생산은 면사 시장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생산을 조절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 수요가 줄면 토요일ㆍ일요일에는 조업을 정지하는 방식 등으로 조정하고 있다.

원사의 수요가 있음으로써 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급 밸런스에 따라 생산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 내 실의 수요는 약 10만곤(梱)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에 일본산 실은 5만 5천곤 정도로 추정되며 곤도보가 생산을 줄이면 수급이 자연 줄게 된다.

도요하시 공장의 OE 정방기는 22, 23대 있으며 완전 가동 중이다. 10수, 16수, 18수, 20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판매는 잘 되고 있다.

◎ 일본 내외 공장의 가동, 수급 밸런스 따라 수시 조정

중국의 지난성등방직(濟南成藤紡織)은 컴팩트 정방기를 몇 대 설치 완료하고 중번수용 원면으로 팬츠나 드레스 셔츠용 실을 생산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판매가 계속 잘되면 컴팩트 정방기의 증설도 추진할 것이다.

칭다오등화방직(青島藤華紡織)은 5만추를 약간 웃돌고 있으며, 정밀병(精密

瓶) 방식의 경량 혼면기도 도입하여 설치하였고, 텐셀 등으로 생산을 시작하였다. 편기도 합섬 저지용 등으로 100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고압 염색기와 같은 신예 염색기도 갖추고 있다.

판매면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상반기에는 실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며, 합섬 저지 등의 호평에 따라 편성·염색도 수익을 개선하고 있다.

중국에 설립한 봉제 자회사 곤도보시장(近藤紡時裝)은 2003년 6월부터 가동되어 컷소(cut-sew) 주체로 생산하고 있다. 종업원은 100명으로 시작하였는데 300명 체제로 커졌다. 이 곤도보시장은 오사카 사무소에 있는 텍스타일 사업부가 제품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어린이 옷 제품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은 순조롭게 커져서 2004년도에는 10억엔의 판매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봉제용 원단은 칭다오등화방직으로부터 85%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일본제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등동화섬방직(濟南藤東化纖紡織)은 2in 화섬방 3만 2천추로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사 등의 합섬사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시황이 좋지 않아 2003년 말부터 가동을 중지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판매가 잘되고 있어, 10만추 규모까지 생산 설비를 증설하였다.

면 방적이 일본 내에서는 차별화 실로 전환하는 경향이 큰데, 곤도보는 고품질의 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본 국내나 해외 모두 사업 운영은 같다. 생산량이 남아돌면 밸런스를 봐서 생산을 조성하면 된다.♣